

인간과 하천

2

River & Culture



이재형 |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h20000@mitm.go.kr)

선비의 벗 석창포(石菖蒲) 이야기

우리 조상들은 나무 한그루 풀한 포기라도 변상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모든 물체를 살피어 나 자신의 인격수양과 연결시켜(觀物省身) 마침내 자기의 인격완성에 이르게 하였다(知至意識). 찬바람이 불어도 변치 않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모든 꽃과 나무들의 으뜸으로 여겼으며, 국화에서 은일(隱逸)의 모습을, 매화와 난초에서 높은 품격과 운치를 사랑하였고, 괴석(怪石)과 연(蓮)에서는 군자의 덕을 취하였으나, 석창포(石菖蒲)는 이 모든 풀과 나무의 덕성을 고루 간직하

가 3~5cm의 작은 것과 15~30cm의 큰 것 두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자생한다. 석창포의 별칭이 몇 가지 있는데 수창포(水菖蒲)라 불림은 맑은 물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며, 석창포 또는 돌창포라 함은 계곡이나 시냇가의 돌 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같은 류에는 창포가 있는데 오월 단오에 머리를 감던 식물로 같은 수생식물이나 크기가 석창포에 비해 훨씬 크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크게 구별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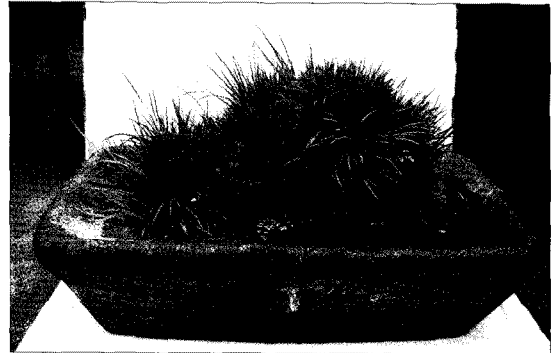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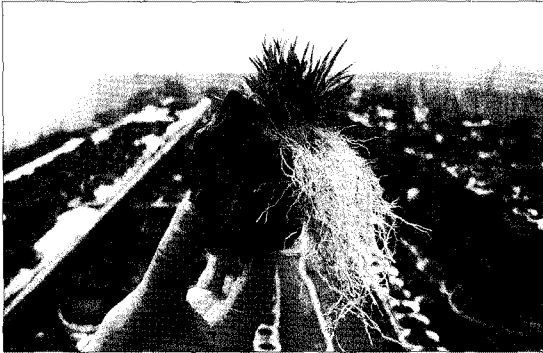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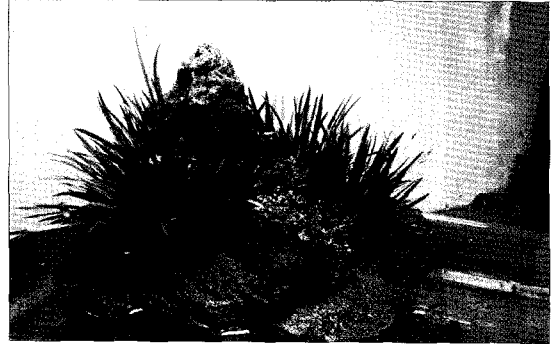


였다 하여 문방오우(文房五友)로 대접해 선비의 서가에 높이 올려 동거동락(同居同樂) 하였다.

석창포는 전남성곡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잎의 길이

고 한데 뭉뚱그려 칭하였다.

<격물론>에 “창포는 일명 창잠이라고도 한다” 하였으니 높(池沼) 사이에 나서 뿌리를 꾸불꾸불 도사리고 있고, 마디 모



양이 말채찍과 같아 한 치 길이에도 마디가 아홉 개나 붙은 것이 아름답다. 지금 한 종류가 있는데 뿌리와 싹이 심세하니 이른바 석창포이고, 뿌리가 큰 것은 창양(昌陽)이라 하니 먹을 수는 없다. 한퇴지(韓退之)는 창양을 먹으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창양을 창포로 잘못 안 것이다. 또 〈본초(本草)〉에 “창포를 오래 먹으면 몸이 가볍고, 귀와 눈이 밝아 건망증이 없어지고, 정신이 또렷 또렷해지며 수명이 길어지고, 슬기를 돕고, 뜻을 고상하게 하고, 늙지 않으며, 일명 요구(堯韭)라 한다”고 하였다(양화소록에서).

등잔이나 촛불의 그늘음을 없애줄 뿐 아니라 방안에 키우더라도 새벽이면 구슬 같은 이슬이 잎 끝에 맺혀져 이 이슬을 눈에 바르면 눈이 좋아진다고 하니 선비의 서가엔 더 없지는 친구였을 것이다.

석창포는 이른 봄 잎이 가늘었을 때 뿌리째 캐어 수반에 올려놓는데 잔뿌리를 잘라주고 수반에 뿌리를 벌려 놓고 그 위에 괴석(怪石)을 올려 진물로 틈새를 채운 후 옛 방식대로 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을 주며 물에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해 주면 수반 위어나 돌에 금세 착근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반에 시냇가 둥글넓적한 돌을 놓고 그 위에 여덟아홉 뿌리를 얹어놓아 물에 뿌리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 자주 갈아주면 즉시 무성해진다.

가꾸는 법은 여러 해 동안 개울 속에 묻힌 기왓장을 뿔아가루를 만들어 뿌리고 심는다. 처음에는 둥근 돌 위에 심고 두 번째는 호석(好石) 위에 심으면 잎이 가늘어진다. 「요화법(澆花法)」에 “석창포는 뿌리를 씻어 주는 것을 좋아하니 자주 뿌리를 씻어 주면 잎이 가늘게 빼어난다” 하였다. 연기를 몹시 꺼리는데 사람들이 집에다 많이 두어 신불(神佛)을 공양할 때 향을 피우는 연기를 받게 하여 고스려져 죽게 한다. 또 돌 틈에서 솟는 물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줄 것이고, 우물물이나 바닷물은 주지 않는다. 만약 잎에 묻은 먼지나 때를 없애려면 구태여 물을 갈아치울 필요는 없다. 밤에 노천(露天)에 내놓아 이슬을 받게 하고 아침 해가 뜬으면 바로 거뒀을 것이니 이렇게 하면 오래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빗물을 독에 저장하여 3, 4일 지난 뒤에 자루 달린 표주박으로 빗물을 퍼서 탄 독에 붓고 찌꺼기를 버린다. 이렇게 서너 번을 거듭하면 물이 맑아지니 자주자주 갈아 담



이야 할 것이다.

창잠(석창포)은 주나라 문왕(文王)만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후세의 유명한 선비와 운치 있는 중들도 좋아하는 이가 많아서 노래와 시로 널리 전했던 것이다.

소동파(蘇東坡)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창포를 아는 이 없어, 이 험한 개울가에 났는가?
 높은 산 눈서리에 시달려, 누렇게 시든 잎 피나지 못하고
 천 년을 지난 뿌리, 규룡(虯龍)인 듯 도사렸구나.
 귀신이 길이 수호하니, 경박한 무리들이야 넘나볼 수
 있으랴.

사첩산(謝疊山)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신령스런 그 뿌리, 속기(俗氣)를 벗어났네!
 고고한 그 지조, 자연과 맹세하는가,
 밝은 창 깨끗한 책상 본디의 인연이라,
 화사한 꽃들과는 사귄 뜻이 없어라.

삼요(參寥)의 송(頌)에도 이런 것이 있다.

시냇가 오보록이 고운 싹 돌아와니,
 접장은 선비님들 캐들고 돌아와서,
 문석(文石)과 나란히 맑은 여울 벗어 되었네.
 아흠 마디 서린 뿌리 눈서리도 싱싱하다.
 그윽한 내 집안에 길어길이 벗어리라.

이런 시가를 보더라도 저 미미한 식물들도 제 나름대로 의기(意氣)가 통해야 서로 친할 수 있으니 석창포야말로 속세를 떠난 고답(高踏)한 사람한테서나 사랑을 받을 만하다.

이른 봄에 도사린 뿌리에 가는 잎이 핀 것을 캐어 싹뿌리를 따 버리고 괴석(怪石) 밑에 늘어놓고 조약들로 눌러 두되 옛 법과 같이 한다. 돌 틈에서 솟아난 물을 주어 물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면 자연히 뿌리가 생겨나 돌 위에 얹혀서 서리게 된다. 또 다른 그릇에 냇가의 동글동글 한 잔들을 주워 담고 그 위에 뿌리를 심고 자주 물을 갈아 주면 곧 무성해진다. 이 분을 책상 위에 놓으면 글을 읽을 때 등잔불의 그윽음을 거두어 눈이 맵지 않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아쉬운 것

은 물을 오래 주면 잎이 자꾸 길어서 서대(犀帶)같이 되는 것이다. 뜰에 심어 물기를 받지 않아야 잎이 가늘고 길지 않다. 거두어 둘 때 너무 따습게 하면 시들어 썩어 버린다. 정로(鼎爐)는 오지그릇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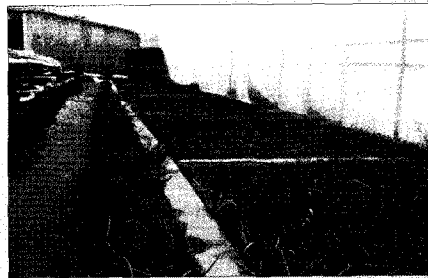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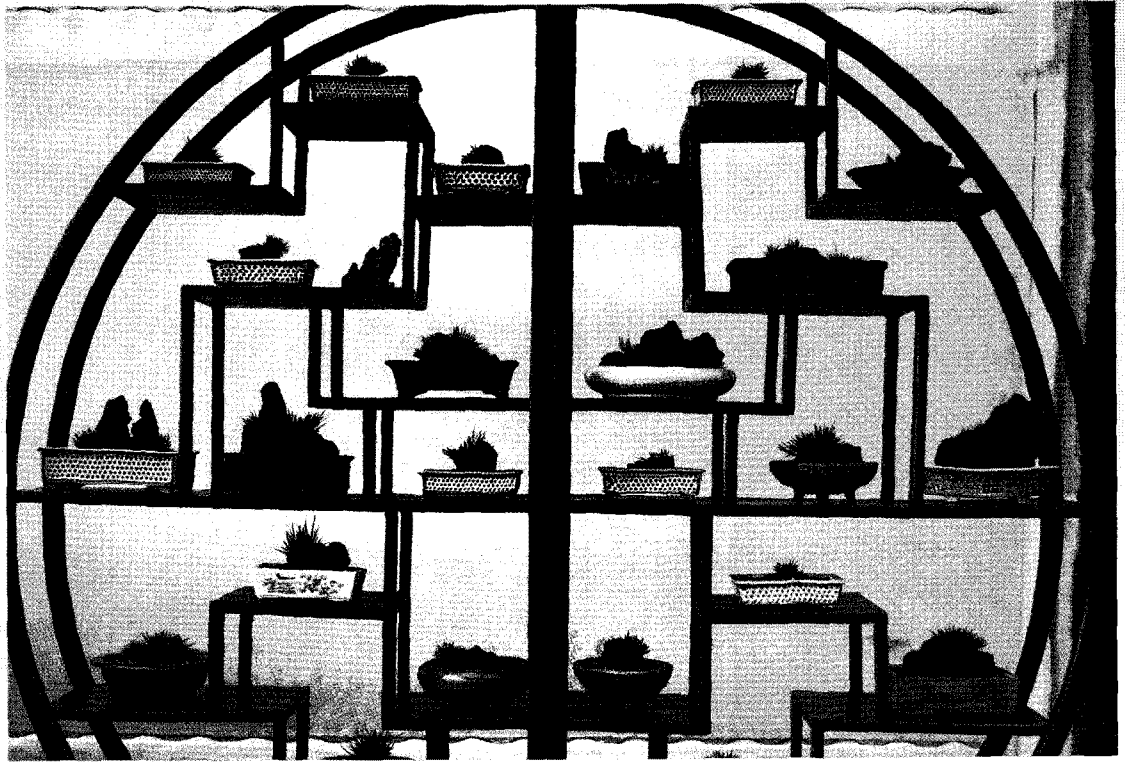
근년에 유명한 재상 한 분이 왕명을 받들고 일본에 가 있을 때, 서방사(西方寺)에 가서 한 늙은 중을 만나려고 대청에 앉아 쉬고 있는데 늙은 중이 어린 중을 시켜 한 개의 바다 소라를 가져다 보인다. 소라 등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데, 마치 용사(龍蛇)가 두세 겹으로 도사리고 간간이 가는 바늘처럼 갈기가 저 있는 듯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이 곧 창포가 아닌가. 용사같이 보이는 것은 창포의 뿌리이고 바늘처럼 생긴 것은 잎이었다. 재상이 하도 기이하게 생각되어 그 뜻을 시험하려고 노승에게 농담을 걸었다. “바라건대 진귀한 보물을 주어 나의 여행을 화사하게 해 주시오” 하니 노승이 “이 물건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 이같이 되었으니 아마도 속세에 나가면 말라 죽을 것이오” 하고 그것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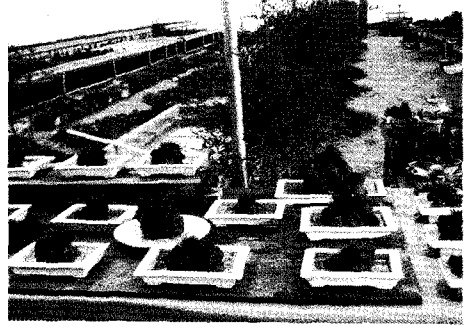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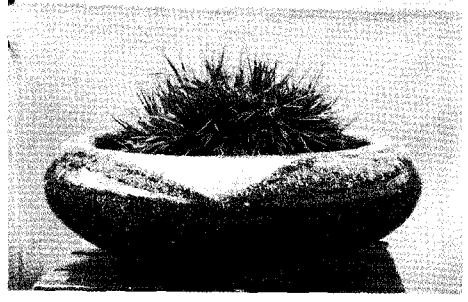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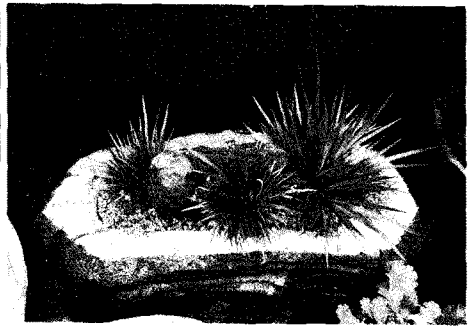
보냈다고 한다. 생각건대 그 물건의 기괴함이 이와 같을 수 있으랴. 속세의 창포와는 참으로 다르구나. 내 기록해 두어 아는 사람을 기다린다(양화소록에서).

양화소록이란 세조(世祖) 때의 문신 인재(仁齋)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이 지은 원예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완상(玩賞)하여온 꽃과 나무 몇 십 종을 들어 그 재배법과 이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꽃과 나무의 품격과 그 의미, 상징성을 논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지식인 사회엔 선비다운 선비가 드물고 민족의 정신적 맥락엔 선비정신이 이미 쇠퇴하였으니 선비의 서가에 함께하던 석창포와 석창포의 품성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같은 또래 선비의 친구인 난초는 이제 집집마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 지천으로 넘치고 있으나 난초보다 더 사랑을 받던 석창포는 선비와 선비정신과 함께 이 땅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







石 宮 精